

미야케 가문 주택

현재 미야케 가문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무사 가문 저택은 다나베 히코에몬을 시조로 하는 다나베 가문의 주택입니다. 히코에몬은 1601년 최초로 은광의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를 지냈던 오쿠보 나가야스로부터 광산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할 관리로 임명되어 이와미 은광 초기의 중요한 행정직 다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히코에몬은 1603년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가문이 은광의 권리를 획득한 후 은광을 경영하기 위해 고용한 최초의 전문가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이때 불려온 히코에몬의 새로운 동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와미가 아닌,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 출신이었지만 그의 가족이 이와미 은광 주변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광산 관리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나베 가문은 이와미의 은이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로 보내지기 전에 찍는 각인을 관리하는 매우 명예로운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다나베 가문이 살던 집은 1800년에 오모리의 대부분을 태운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곧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7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소유주였던 미야케 가문의 성을 딴 '미야케 가문 주택'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대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집과 큰 길 사이에 배치된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둘러싼 당당한 모습의 울타리, 미쓰도모에(물을 의미하는 쉼표 모양의 무늬 3개로 이루어진 소용돌이 문양으로 화재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여겨짐)가 장식된 산가와라부키 지붕(과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기와 한 종류를 겹겹이 포개어 나란히 이은 지붕) 등 1800년대 초기 무사 가문 저택의 특징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야케 가문 주택은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